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① 세계유산의 종류와 우리나라유산의 지정현황



이준훈
포천시의회
경기도문화원장협의회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판소리·강릉단오제 무형유산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1972년 11월, 제 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된 유산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을 확인하여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을 말한다. 이를 정한 목적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협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함이다.

본지는 우리나라 문화재종 자랑스런 국제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14점을 년대 순으로 보도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공적의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문화원장협의회 포천시지회 이준훈 회장의 원고를 15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UNESCO 세계유산일람표에 등록된 문화재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별도로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1988년 102번째로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1988년에 153번째로 가입되었다. 한국은 1997년에 유네스코로 격상되었고 1988년에 부의장국으로 올랐다. 문화유산은 인류의 문화활동을 통하여 남긴 유산으로 세계적으로 644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7건, 북한에서 1건으로 전부 8건이 지정되어 있다. 자연유산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이거나 그러한 생성물의 일군으로 이루어진 미적 또는 과학적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적,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와 과학적인 보존 가치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자립적 지역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지정된 지역은 없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지정요청 중이며 세계적으로 162건이 지정되어 있다.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유산은 현재까지 없으며 세계적으로 24건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기록유산은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에 유네스코는 1985년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여 기록유산

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기록유산은 단독 기록일수도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수도 있다. 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와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120점(2005. 7월 현재)의 기록유산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훈민정음 외 3건의 기록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정체성과 창조성의 증진, 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의 핵심 요소로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문화 유산의 보존과 재산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형유산은 세계적으로 40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가 지정되어 있다. (주) : 종묘와 종묘제례 및 제례악은 1개의 문화유산과 다른 개의 무형유산이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남녀간의 갈등과 사랑의 관계



박정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교수

남자와 여자는 항상 갈등과 사랑이란 모순을 유지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동양적 관점에서 본다면 남성과 여성은 만물 중에서 음과 양의 상징적 존재로 나타나며,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있지만, 스트린베리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종종 형성되기도 한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듯이 이집트에서 여성의 폭력이 남편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기사에 놀랄 것도 하고, 남편의 폭력에 온몸에 멍이 든 여성들의 사진을 보고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남녀의 결합이 인간사회의 번성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지만 그 관계가 서로간의 권력이나 성의 관점에서 서로 지배하려는 욕심이 앞설 때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할이나 시켜주지요."라고 위협하여 쫓아버린다. 또한 그녀는 동생인 비앙카에게 온갖 심술을 부리며 괴롭히기도 한다.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남성에게 극도의 반감과 증오심을 나타내는 케더리나는 그야말로 말괄량이 그 자체이다. 이러한 거친 여성에게 좋은 충고나 설득은 무용지물이다. 그녀에게 나타난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더리나의 자침금을 노리는 페투르키오라는 사내이다. 그야말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그는 케더리나의 기를 누르기 위해 강수를 서슴치 않는다. 그는 자신을 거부하는 그녀를 완력으로 접근해서 정혼할 뿐 아니라 결혼식에도 연미복을 입지 않고 마치 사냥꾼의 복장으로 그녀의 혼을 빼놓는다. 그런 아내라 피로연도 필요 없다고 물리친다. 그는 손님들에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절대적인 권리를 내세우며 "발을 굴러도 노려보아도 조바심을 내어도 소용없소.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 주권자가 될 테니까. 신부는 나의 소유물이요, 나의 동산이요, 나의 집이니까. 나의 가구요, 나의 밭이요, 나의 소요, 나의 당나귀요, 나의 ...모든 거죠."라고 소리친다. 요즘의 여성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정신병자로 공격받을 수 있는 남성 중심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온갖 고행을 겪도록 만든다. 하인들이 만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어 버리는가 하면 그들에게 폭력을 구사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장악해버린다. 결혼식 이후 며칠 동안이나 음식 구경을 하지 못한 케더리나는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페투르키오의 의견에 복종하는 상황에 이른다. "천상(天上) 천하(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식의 행패를 부리던 케더리나가 남편의 권위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순간이다. 페투르키오가 해를 보고 달이라 하면 그녀는 달로 인정하고, 달을 해라고 억지를 부려도 어쩔 수 없이 해라고 수용을 한다. 물론 남성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는 현모양처(賢母良妻)형으로 변화한 그녀가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전에 그녀를 경멸한 남성들은 케더리나의 변화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페투르키오는 다른 남성들과 누가 남성의 부름에 가장 빨리 오는지 내기를 한다. 예상을 뒤엎고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케더리나이며, 더 나아가서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 충고를 한다. "그런 오만한 눈초리로 쏘아보면 자기의 주인이요, 성주요, 군주인, 남편한테 상처를 주지요. 그런 버릇을 하면 고운 얼굴이 형편없이 되지요. 마치 된서리가 목장을 망쳐놓듯이요. 당신의 명성도 깨지지요. 회오리 바람이 어찌든 꽃 봉우리를 부숴놓듯이요." 그녀는 남편에게 양순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살려주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극히 양순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남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율이 세계에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를 다시 조망해보아야 할 시점에서 케더리나의 변화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에세이 33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21세기를 가리켜 지식 정보 사회 또는 지식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아는 것이 힘(Knowledge is power.)'이라고 했거니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독서는 그와 같은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훌륭한 독서가 되려면 독서의 방법과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독서 기술을 익힐 때 우리는 훌륭한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Goethe)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독서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책 읽기의 즐거움 혁명'의 저자(著者) 장경철 교수에 따르면, "독서란, 글자 속에 담긴 사상과 사건과 원리를 끄집내어서 나의 정신과 삶에 담는 행위"라고 말하는데, 즉 독서는 책 안에 담긴 사상과 사건을 운반하여 우리의 정신에 담게 만드는 예술이며 기술인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인 스웨덴에서 독서를 장려하고자 해서 만든 '책의 날(4월 23일)'은 세계 각국에서 똑같이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팔만대장경이

완성된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정해 함께 기념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유럽에서 처음 인쇄술이 발명된 것을 기념하는 세계 인쇄 주간(11월 셋째주), 안데르센의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 어린이 도서의 날(4월 2일), 사전으로 유명한 웹스터(Webster)의 생일을 기념한 사전의 날(10월 6일)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독서광이었던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독서가 자신의 상상력을 불타오르게 했다고 했으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상상력이 활발해져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신적 자유 작용을 일으켜 인생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폭넓게 꾸준히 쌓아 온 독서 경험은 실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높여 주고, 삶을 보다 잘 관리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편, 시(詩)나 소설 등 책을 읽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비블리오테라피(Bibliotherapy: 독서치료)'라고 하는데, 행동, 문제 해결, 생존, 용기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문화 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여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책을 읽을 때 마치 실제 상황인 듯한 신화가 신경계에 전달되어, 책 속 경험을 내 경험과 연결시키므로 주인공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대리 체험은 자신의 존

재와 감정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며 또한 자신의 경험의 한계와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인생의 문제에 대응하는 힘을 기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글을 통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역으로서 새삼스레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독서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독서 기술>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멍이 쌓아 온 독서 경험은 실생활에서 적용력을 높여 주고, 삶을 보다 잘 관리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편, 시(詩)나 소설 등 책을 읽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비블리오테라피(Bibliotherapy: 독서치료)'라고 하는데, 행동, 문제 해결, 생존, 용기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문화 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여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책을 읽을 때 마치 실제 상황인 듯한 신화가 신경계에 전달되어, 책 속 경험을 내 경험과 연결시키므로 주인공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대리 체험은 자신의 존



지정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정규수업 이외에 틈나는 대로 도서실 이용하는 습관을 배양해야 하며, 더불어 그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독서에 도움이 되는 사전류를 마련하면 좋습니다. 최신의 국어사전은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1891-1980)는 "언뜻 보기에는 독서가 창조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쉬우나, 실은 깊은 의미에서 본다면 독서는 창조행위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어려서 책을 읽는 것은 단려진 문틈 사이로 하늘의 달빛을 보는 것과 같고, 청년 시절에 책을 읽는 것은 자기 집 정원을 거닐면서 달빛을 보는 것과 같으며, 노년에 책을 읽는 것은 다락에 올라 하늘의 달과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독서한 양(量)과 그 질(質)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나의 눈, 즉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깨우쳐 그 마음이 살찌우게 하며, 인격 성장에 지름길이 되어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책을 열면 위대한 삶의 향기가 있고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책 속의 길, 읽으면 나의 길입니다.

“ 그녀는 남편에게 양순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살려주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극히 양순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남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습관이나 자제가 교육의 과정을 거쳐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무리 고집불통인 자도 어느 계기가 있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남녀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를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려는 것이 교육이라면 이는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세익스피어는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여자를 묘사한다. 케더리나는 세익스피어의 여주인공 중에서 가장 거칠고 막무가내인 여성이다. 그녀의 아버지 뱃티스터는 천덕꾸러기 만팔을 마치 시장판에 끼워 파는 물건처럼 대중 처분해버리려고 기도한다. 뱃티스터는 그녀는 자침금을 탐내어 청혼하려는 남성들을 거친 말로 물리친다. 그녀는 청혼하려고 하는 호텐시오라는 남자에게 말하기를 "케더리나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만약에 세발 달린 의자로, 당신 대감님을 밧질해 주고, 그 얼골엔 빨간 칠 파란 칠을 해서 바보 역



이희용 공동대표 포천예총 제3대 회장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내울 포럼은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며 계획 없이 흘러가는 정서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멋진 포천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정직한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 첫 번째 토론회 주제 : 포천시 축제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두 번째 토론회 주제 : 포천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내울포럼 공동대표 송순석 윤순옥 이희용
총무 이은미
회원 강구원 공명수 안영숙 양문석 윤우영 이관우
이광호 이규연 이승천 임갑연 장승호